

# 다시 푸는 경서

## 법구경

### 계신품(誠愼品) ①

人而常清 인이상청  
奉律至終 봉률지종  
淨修善行 정수선행  
如是戒成 여시계성

사람이 항상 청정하고  
끝까지 계율을 받들며  
깨끗한 마음으로 선행을 닦으면  
이와같이 계행은 성취된다

慧人護戒 해인호계  
福藏二寶 복차삼보  
名聞得利 명문득리  
後上天樂 후상천락

지혜로운 이 계율을 보호하니  
그 복이 삼보에 이르고  
이름이 나고 이익을 얻으며  
죽어서 천상에 올라 즐기리라

常見法處 상견법처  
護戒成明 호계위명  
得成眞見 득성진견  
獲上吉祥 배종길상

### 지혜로운이 계율 보호해 등불삼으면 스스로 청정하여 괴로움 사라지리라

언제나 법이 있는 곳을 보고  
계율을 보호해 등불 삼으면  
참다운 도리를 알게 되리니  
무리 가운데 상서롭게 되리라

持戒者安 지계자안  
舍身無悔 영신무회  
夜臥恬淡 아와염담  
痛別常歡 오즉상환

계율 지키는 이 편안하니  
일신에 번뇌 없게 하여  
밤에 누워서는 편안하고 맑으며  
깨어 있으면 언제나 즐겁다

修戒在施 수계보시  
作福爲福 작복위복  
從是感彼 종사적복  
常到安處 상도안처

계율 닦고 베풀을 행하면  
복을 지어 복을 누리고  
이로 인해 피안에 가서는  
항상 편안한 곳에 이르게 된다

何終爲善 호종위선  
何善安止 하선안지  
何爲人寶 하위인보  
何盜不取 하도불취

어떤 것이 마지막까지 선이 되고  
어떤 것이 편히 머무는 데 좋으며  
어떤 것이 사람의 보배가 되고  
어떤 것이 도둑에게 빼앗기지 않는가

戒終老安 계종노안  
戒善安止 계선안지  
慧爲人寶 해위인보  
福盜不取 복도불취

계율은 마지막까지 편안이요  
계율은 편안히 머무는 데 좋고  
지혜는 사람의 보배가 되고  
복은 도둑이 빼앗지 못한다

比丘立戒 비구립계  
守攝諸根 수섭제근  
食知自節 식지자절  
愜意舍慮 오의령용

비구는 계율을 세우고  
육근을 거두어 지키며  
음식에 스스로 절제를 알아  
깨달음의 뜻이 따르게 한다

以戒離心 이계형심  
守意正定 수의정정

### 내학정관 내화정관 무등정정 무망정지

계율로써 마음을 행복받고  
뜻을 지켜 바른 선정을 얻고  
안으로 바르게 관찰할길 배워  
바른 지혜 잊지 않도록 하라

明哲守戒 명철수계  
內學正智 내사정지  
行道如應 행도여응  
自淨除苦 자정제고

밝고 뚜렷하게 계를 지키고  
안으로 바른 지혜 잘 살피며  
이치에 맞게 도를 행하면  
스스로 청정하여 괴로움 사라지리라

離諸煩惱 견제제구  
盡滅勿生 진만물생  
終身求法 종신구법  
勿離離苦 불립리성

온갖 허물 모두 없애고  
자만심 버려 다시 나지 않게 하며  
종신토록 법을 구하여  
잠시도 도의 길 여의지 말라

龍眼

## 엄암스님 (금산사 서래선원 선덕)

### “중생들이 불집속에 넘나들은 세상탐욕 놓지 못함이고 세가지 독번뇌 보물삼는 까닭”

나는 여덟살 때 금산사에서 멀지 않은 청련암이란 곳으로 출가했어요. 옛그제였는데 70년 세월이 휘익 낯전에 스치는 바람소리처럼 흘러갔어요. 세월이 살 같다고 하더니만 그 말을 새겨야 해요. “푸른 하늘 흰 구름을 벗삼고/한밤에는 두견새 울음소리를 죽비로 삼으며/말없이 고요하고 쓸쓸히 삼매에 드니/이제 사 웃조사의 훌륭한 발자취를 알겠네/토굴 큰 집에서 거처 나를 죽이고/다시 참나로 새롭게 태어나면/옛부처와 합나는 다를 바 없네.”

아주 어린 나이였으니까 그때는 무엇을 크게 이루겠다고나 그런 생각은 아니었어요. 어머니께서 일찍이 세상을 떠셨는데, 절모를 때지만 세상이 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부모님도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무공스님이라고, 작은 아버지가 그 절의 주지로 계셨으니까 출가한다는 생각도 없이 즐거운 것이지요. 말하자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무공스님은 2년 후 돌아가셨는데, 부도도 모시지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돈이 많이 드니까 염두도 못냈지요. 이 분도 선승이셨는데, 인근 사찰에서 선법문 청할 때 무공스님을 많이 불렀어요.

은사스님은 김화봉스님이었어요. 내 사형사제들이 일곱인데, 대방광불화엄경(大方光佛華嚴經)을 따 대일 법연, 이렇게 이름붙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세째였지요. 더러 죽기도 하고 흉터져 지금은 어찌 지내는지 소식을 모르고 지냅니다.

스님 밑에서 초발심자경문 천자문 명심보감을 배웠어요. 당시에 청련암은 새벽 3시면 예불을 드렸는데, 그때는 세수도 고박 해야 했어요. 겨울에는 돌쟁이로 얼음을 깨서 양치하고 세수도 했는데, 물을 떠서 얼굴에 대면 얼음이 푹푹 떨어질 정도였어요. 후시 3시에 일어나지 못해 예불을 빼먹으면 참회의 절을 많이 했어요. 엄격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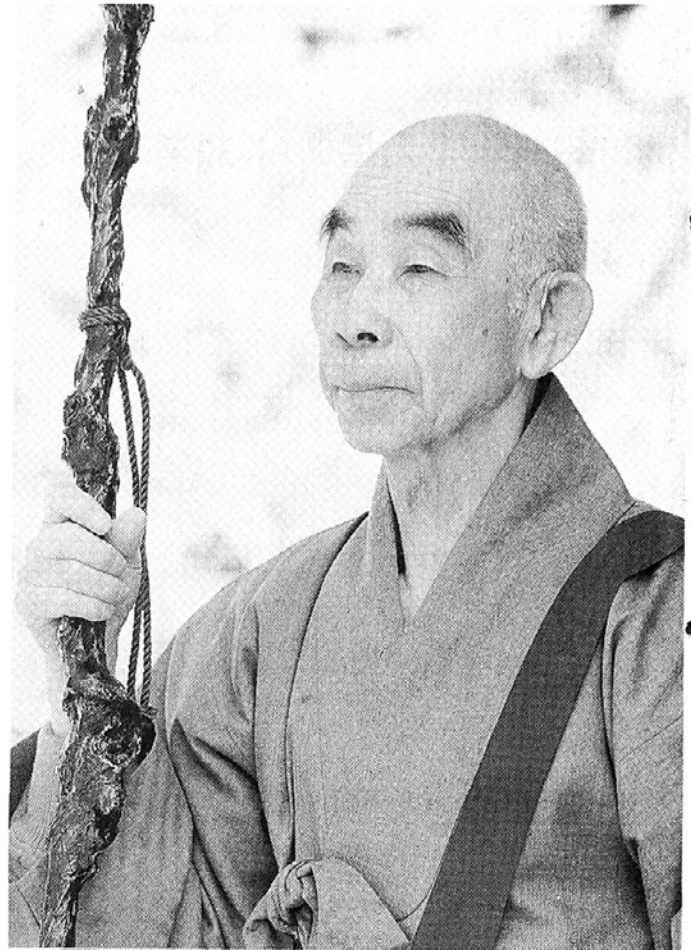
“어느날 은사스님이 나를 부르시더니, ‘가거나 오거나 항상 무(無)자를 놓지 말아야 한다. 알겠느냐?’고 다짐을 받으셨어요. 은사스님이 근엄하게 말씀하시는 지라 ‘예’하고 대답은 했지요. 그때가 열한 살 나던 해였어요. 무라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린지 그 나이에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이튿날 새벽 3시에 전날 배운 것을 외우고 가만 있으니까 스님이 ‘생각해야 한다’고 그래요. ‘예’하고 또 대답했지요. 그런데 된 소린지도 모르는데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도 안했어. 비는 오고 하는데, 당시는 말뚝도 없는지라 스님이 가르친 <초발심자경문>을 외우는 일이 하루의 전부였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구절이 있는데, 아운스님의 가르침입니다.

“부드러운 옷과 맛있는 음식을 받아 쓰지 말지이다. 발 갈고 씨 뿌리는 일로 부터 입과 몸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소의 공로가 많고 무거운 짐 아니라 또한 적은 벌레들의 상해도 한량없다. 남을 수고

- 1918년 전북 김제 생
- 1925년 화봉스님 은사로 전북 청련암에서 득도
- 1935년 백암사간원 만암스님 문하에서 수도
- 이후 문수사 상임사 주지 역임
- 현 금산사 엄암선실에 주석 정진



### ‘남 수고롭게하여 나를 이롭게 말고 다른 목숨 죽여 내 몸만 살리려 말라’ 지금도 수행지침 삼는 아운스님 가르침

롭게 하여 나를 이롭게 하는 것도 오히려 하지 못할 일인데 하물며 다른 목숨을 죽여서 내 몸만 살리는 일을 어찌 차마 하겠느냐.”

이런 가르침이 있었기에 문수사라는 시주 많은 절주기도 놓아버려서 불났다. 재물에 욕심을 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있었지요. 지금 이곳도 남들은 화장실을 개조해서 만든 토굴이라고 쉬이 보는데, 두령 남짓해도 ‘엄암선실’이라고 담우도 반듯하게 걸려 있고 기쁨보일라까지 놓였으니 토굴이 아니고 나에게 대굴이 나 진짜없습니다. 현관은 일각스님이 써

주신거지. 수행인은 마땅히 마음을 단정히 하여 겸소하고 진실한 것으로서 근본을 삼아야 한다고 했어요. 표주박 한 개와 누더기 한 벌이면 어디를 가나 걸릴 것이 없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똑바른 줄과 같아야 한다’고 했으며, ‘바른 마음이 곧 도량’이라고 하셨습니다. 휴정스님은 ‘이 몸에 탐착하지 않는다면 어디를 가나 거리낄 게 무엇인가’고 했어요. 오늘의 수행인이 자신을 점점하는 거울로 삼아야할 말씀이지요. 사할때 되던 날 작대기로 내 머리를

때리더구만, 그리고 “왜 안했어.” 긴 말 씀도 안하고 눈은 부릅뜨며 야단을 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평소 인성을 높 이시던 분이 아니었어. 그러니 이거 반 드시 해야 되는 것이구나 생각은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걱정이 되더라고.

나를 때려요. 잘 뒷길 개울가 평평한 바 위에 앉아 은사스님의 모양을 본따 가부 좌하니 마음이 고요해지고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30분쯤 앉아 있었 어요. 정심공양 후 또 올라가서 앉았어요. 두어 시간 앉아있었나봐요. 질릴 하다가도 또 올라가고 싶어지더라고요. 다음 날 새벽, 스님께서 빙그레 웃으시 며, “그렇게 해야 한다.” 한마디 하시더 군요. 내 뒤를 살폈나 봅니다.

수행은 곧 고행입니다. 도를 구함에 고행을 두려워해서는 안되지요. 고행하지 않고서 어찌 성불에 이를 수 있었어요. 고행이란 자신을 길들이기에 매였어요.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인생에 받은 몸 지나가기는 마한가지니까 나를 확

### 생활 속의 불교 119

## 지금 · 여기서 여래와 함께 살고 있는가.

“수행자에게는 내일이 없다. 오직 ‘지금 · 여기’가 있을 뿐이다. 내일이나 모래를 기약 해서 안된다.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깨어 있는 정신으로 직시하면서 묵묵히 코끼리 걸음으로 걸어라

지금 · 여기가 바로 삼천대천 세계의 근 본자리이며, 바로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 지 영건의 시간을 머금고 있는 자리이다. 고로 올바른 선행을 하는 사람은 하루 하루 순간 순간을 그대로 영원이 무한의 시간으로 살아간다.”

지금 · 여기가 그대로 도량이다. 자성이 그대로 사찰이다. 세속을 떨치고 입산해야만 입산이 아니고 몸을 일으켜 집을 떠나야만 출가가 아니다.

마음의 산, 마음의 도량으로 입산하고 출가해야 한다. 밖으로 고달리고 집착하는 마음을 거두고 내면으로 향하는 것이 그대로 귀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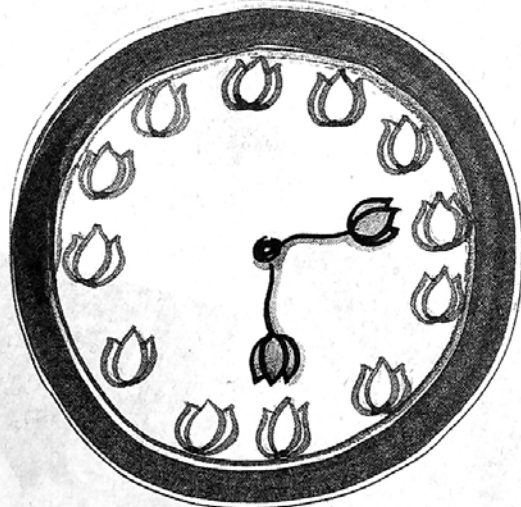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가정·직장 학교가 그대로 여래의 처소이다. ‘여기’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정토요 구경열반의 자리이다.

따라서 나의 발길이 닿는 곳, 내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여래의 처소로 알고 청정하게 한다면 따로 불경정토를 찾지 않아도 않은 자리가 그대로 정토가 된다.

‘지금’ 우리가 쉬 쉬고 느끼고 말하고 보는 이 순간이 바로 영겁의 시간을 머금고 있는 순간이다. 우리는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 흐르는 시간은 없다. 오직 지금이 있을 뿐이다. 말하자면 지금 속에 수억겁의 과거와 그 끝을 알 수 없는 미래가 함께 한다. 따라서 ‘지금’에 2천5백여년 전 부처님 오신 날이 함께 하고 아득한 훗날이라는 미루부처 오실 날이 함께 한다.

따라서 바른 수행자라면 누구나 ‘지금 · 여기’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기가 할 수 있고 바라마지 않는 이상의 삶을 일구어 가야 한다.

내일은 없다 모래도 없다는 생각으로 ‘지금 · 여기’에 혼신의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지금 여기에서 삼매의 경지를 이뤄내야 한다. 지금 여기에서 청정한 삶을 기꾸어야 한다.



‘지금 · 여기’를 소홀히 하면서 내일을 기약하고 모래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것은 다만 망상일 뿐이고 자기를 속이는 일이 될 뿐이다.

비단 수행자가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지금 · 여기’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그가 거둘 수 있는 열매도 결코 최선의 것일 수는 없다. 선한 일엔 선한 과보가 따르고 악한 일엔 악한 과보가 결코 따르듯이 지금 여기서 한 일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게 결과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 그것은 필연이다. 필연일진대 내 운명을 닦고 남을 닦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런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 하는 삶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바로 ‘지금 · 여기’가 근본자리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의 내 속에는 수억겁 거처오는 동안에 쌓아 올린 업의 몽치가 들어있다. 과거라는 시간의 역사가 지금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짓는 삼업이 미래라는 시간의 긴 흐름속에서 상황에 따라 그때

그때 내 앞을 가로 막고 나타나게 된다. 미래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 여기’를 의면하고 무엇을 기약하려 하는가.

오로지 지금 여기에서 여래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만 바르게 사는 길이 된다. 지금 여기에서 여래에 귀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다운 귀의도 아니요 귀의 그 자체일 수도 없다.

바른 수행자는 그래서 하루살이로 산다. 참나주나 향락주의는 아니다. 하루 하루 순간 순간을 지극한 사무침 속에서, 오로지 내게 다가온 상황에 하나로 녹아들면서, 일체의 집착을 놓아버린 채 산다. 거기엔 여한도 기대도 우려도 두려움도 없다. 오직 행동이 있을 뿐이다. 경계와 하나된 삼매가 있을 뿐이다.

자신을 돌아다 보라.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라. 여래와 함께 하고 있는가. 집착을 버린 순수 그 자체로 살고 있는가?

협찬 : 한 용 수